

지방 사족의 「학계안(學契案)」을 통해 본 조선 후기 학술 조직 문화의 일면

An aspect of the academic organizational culture of the late Joseon Dynasty through the Hakgyean of the local family

김기엽**

국문요약 학계(學契(禊·稷))는 학비 조달 및 교육을 목적으로 결성한 계(契) 조직을 말한다. 학계(學契)의 운영에 관한 문헌 자료로 계(契)에 소속된 계원(契員)의 명단을 기록한 「학계안(學契案)」이 있다. 이 「학계안」은 완의(完議)나 절목(節目)의 서문 등 학계의 결성 취지를 밝힌 부분, 학계를 유지하기 위한 절목(節目, 운영 지침·규약), 학계를 이루는 참여 인원의 좌목(座目, 명단)과 출자(出資) 정보 등으로 구성된다. 학계는 많은 이칭으로 결성되었으나 작성자 정보가 없어 학계 결성 목적을 확인할 수 없고, 간지만 기록되어 연대를 추정할 수 없는 자료가 많다. 이 연구에서는 서(序)·후서(後序)·발(跋)·제(題) 등의 글을 통해 편찬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학계안 자료를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학계는 결성 목적 및 안(案)의 편찬 경위에 따라 그 성격이 세부적으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유생의 과업 장려를 위한 장학금과 강회(講會) 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 문인들이 스승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결성한 학계, 서원 원생이나 문중 자제의 학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결성한 학계, 과문(科文) 학습과 과거 시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과거안(科契案)」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학계 결성의 주축이 되어 학계안의 의의를 밝힌 학자들은 유학자로서 나아가야 할 학문의 방향을 제시하고, 학계를 통해 후학을 이끌고 쇠퇴해져 가는 학풍을 일으킬 것을 과업으로 내세웠다.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학계안을 중심으로 학계의 결성 및 학계안의 편찬 경위, 학계 결성의 명분 등을 살핍으로써, 계 조직을 통한 학문의 권장이라는 우리나라 학술문화의 일면을 조망할 수 있었다는 데에 작은 의의를 둔다.

핵심어 학계(學契), 교육, 유학, 장학, 과거, 계안(契案)

- 차례**
- 서론
 - 「학계안(學契案)」의 편찬 경위와 학계(學契)의 유형
 - 「학계안」에 제시된 학문의 정론(正論)
 - 결론

1. 서론

학계(學契(禊·稷))는 학비 조달 및 교육을 목적으로 결성한 계(契) 조직을 말한다. 학계와 목적이 유사한 계 조직으로 재계(齋契)라는 명칭이 붙은 서재계(書齋契)·양정재계(養正齋契)·엄재계(嚴齋契) 등이 있다. 또 한 스승 아래에서 수학한 후학이 조직한 동문계(同門契)·문생계(門生契), 이칭이라 할 수 있는 장학계(獎學契)·교육계(教育契)·홍

- 이 논문은 2024년도 광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광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범계(洪範契)·학문계(學門契)·강학계(講學契)·유학계(幼學契)·흥학계(興學契)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조직이 있다.

학계(學契)의 운영에 관한 문헌 자료로 계(契)에 소속된 계원(契員)의 명단을 기록한 「학계안(學契案)」이 있다. 「학계안」은 조선 전기보다는 후기, 중앙보다는 지방에서 작성한 자료가 많이 발견된다. 일부 「학계안」은 계에 소속된 인원의 이름뿐만 아니라, 학계(學契)를 결성한 취지, 학계의 의의와 효용, 안(案)으로 편찬하여 남긴 목적 등이 서술되어 있다. 학계(學契)의 주축을 이루거나 지역에서 학업 진흥에 기여했던 당대의 문인들은 학계(學契)를 대표해 「학계안」을 작성함으로써, 학계 결성의 의의와 학술적 효용을 밝혔다.

국내 고문헌 소장 기관에는 지방의 사족이 운영한 학계와 「학계안」에 관한 자료가 산재되어 있는데, 학계 작성자 정보가 없어 학계 결성 목적을 확인할 수 없고 간지만 기록되어 연대를 추정할 수 없는 자료가 많다. 다만 일부 「학계안」은 서원 관련 전적으로 보존되어 지역 문화재로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고² 문인의 문집에 수록된 「학계안」의 서(序)·제(題)를 통해서 학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동안 「학계안」 자료에 관하여 본격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학계안」은 대개 계원 자제의 교육과 학업의 진흥을 위해 마련된 문헌 자료이지만, 학자금 조달을 위해 결성한 학계나 지역 사족의 유대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학계, 혹은 서원에서 운영한 학계, 문중 주도로 결성한 학계, 특정 사승 및 학적 집단에 속한 문인들이 결성한 학계 등, 학계(學契)의 주축 및 결성 의도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

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학계안」 원전 자료와 조선 문인의 문집에 수록된 학계에 관한 정보를 참고하여, 「학계안」의 편찬 경위를 유형별로 살피고 학계 결성의 명분과 의의를 파악하고자 한다.

2. 「학계안」의 편찬 경위와 학계(學契)의 유형

「학계안」은 완의(完議)나 절목(節目)의 서문 등 학계의 결성 취지를 밝힌 부분, 학계를 유지하기 위한 절목(節目, 운영 지침·규약), 학계를 이루는 참여 인원의 좌목(座目, 명단)과 출자(出資) 정보 등으로 구성된다. 「학계안」의 구성에서 계원의 명단은 필수 요소이고, 절목 또한 대부분의 「학계안」 자료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학계의 결성 취지를 밝힌 서(序)·제(題)는 안(案)의 규모에 따라 생략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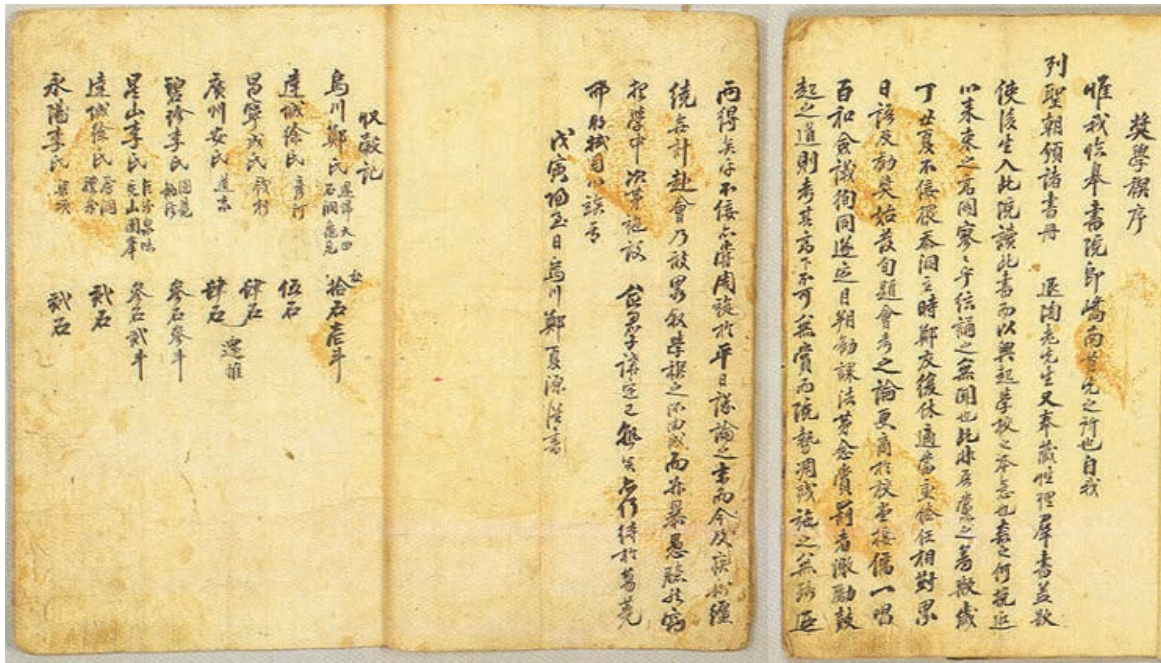
학계는 대개 소속 계원 및 자제의 교육과 학업 장려를 위한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학계의 결성 의도 및 안(案)의 편찬 경위에 따라 그 유형을 세분화할 수 있다.

2.1. 유생의 과업 장려를 위한 장학금과 강회(講會) 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

『임고서원장학계안(臨臯書院獎學契案)』은 임고서원의 원생과 계원 자제의 장학금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학계 관련 자료이다. 서윤보(徐綸輔)와 정하원(鄭夏源, 1762~1833)의 글을 통해 학계안의 편찬 경위와 학계의 목적을 엿볼 수 있다.

서윤보가 임고서원의 원장을 맡았던 1817년(丁丑)에, 마침 임고서원을 중수하는 일을 주관했던 정복휴(鄭復休)가 서원에서 공부해야 할 분량을 정하고 상벌을 내리자는 의견을 내고 이에 관한 절목을 만든 일이 계기가 되어 학

2 『임고서원장학계안(臨臯書院獎學契案)』은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1337~1392)를 봉향(奉享)한 영천(永川) 임고서원의 유생과 향리 자제의 교육을 위해 각 문중들이 결성한 학계(學契)에 관한 자료이다. 임고서원의 『임고서원장학계안』은 『신편음점성리군서구해(新編音點性理郡書句解)』·『논어언해(論語諺解)』·『심원록(尋院錄)』·『임고서원고왕록(臨臯書院考往錄)』 등의 전적(典籍)과 함께 1991년에 보물 1109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도 1〉『임고서원장학계안』, 「장학계서」

계가 결성되었다.³ 이후 임고서원에서 학계를 운영하면서 재화가 없으면 학업을 권장할 수 없으므로, 군수가 봉급을 덜어 기부한 자금에 영천 선비들이 각출한 돈과 곡식을 보태어 원생의 과업 장려를 위한 밑천이 만들어진 것이다.⁴

성주(星州)의 성산학계(星山學契)는 회연서원(檜淵書院)의 강회(講會) 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853년(癸丑) 회연서원에서 수백 명이 4일에 걸쳐 강회를 가진 뒤에, 여러 참석자가 재화가 부족해진 지금 강회를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여 각자 강회 비용을 각출하도록 하였다. 이를 밑천으로 운영하고 남은 자금을 봄가을의 강회 비용으로 삼았는데, 이웃 고을의 유생

들 또한 모임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저마다 이름을 안(案)에 적고 학계를 만들었다. 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 1792~1871)의 「성산학계안서(星山學契案序)」를 통해 강회(講會) 비용 마련이라는 성산학계의 결성 계기를 확인할 수 있다.⁵

오형묵(鳴欵默, 1834~1906)은 「모성재학계서(慕聖齋學稟序)」에서 사업이란 자본이 있어야 공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므로 먼저 운영과 쓰임을 위한 자본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곧 모성재학계(慕聖齋學稟)는 학업 권면을 위한 비용을 마련함으로써, 업유(業儒)가 학비 부족으로 학업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학계였다. 다만 야은재학계(野隱齋學稟)의 서문에서는 학계를 만든 취지는 좋다고 하였으나 학문을 위한 근본적인 마음가짐을 우선하기를 바랐다. 오래되어 명색만 남은 숙실(塾室)이 학업을 이바지할 자본이 없자 여러 가문이 힘을 모아 재물

3 서윤보(徐綸輔), 『임고서원장학계안(臨臯書院獎學稟案)』, 「장학계서(獎學稟序)」. “……歲丁丑夏, 不佞猥忝洞主, 時鄭友復休, 適當重修任, 相對累日, 語及勸獎, 始發旬題會考之論, 更商於校堂接儒一唱百和, 僉議徇同. 遂定月朔勸課, 法第念賞罰者, 謝勵鼓起之道, 則考其高下, 不可無賞, 而院勢凋殘施之無路. 迺於本院落成之會, 老少咸集, 謀所以區畫之, 方試自境內士, 先各門中隨力收數, 而至於凡民一不與焉. 時地主朴侯添助二十兩錢, 合計百有餘金. 遂使本院齋任主其事, 將以料理數年買成土地, 付之別庫, 以其一年所收, 要作一年, 嘗格之資, 其於鼓士氣興文教之道, 豈不爲一助乎. 遂成舉行節目, 揭之如左. ……”

4 정하원(鄭夏源), 『임고서원장학계안(臨臯書院獎學稟案)』, 「서장학계서후(書獎學稟序後)」. “……既而又慮先無賞不動, 無財不施, 則首發收財設契之論, 一唱百和, 如渴赴泉, 以錢以穀, 勿拘多少. 時郡守朴侯聞而嘉之, 許助二十貫錢, 計至百有餘金, 將以取殖買土, 逐年收稅, 以爲施賞之資. 於是, 用一冊子列錄錢數數文, 如某姓幾斛, 某家幾錢, 題其面曰‘獎學稟案’. 此可謂計周而慮遠者矣. 自今而後, 吳鄉文墨之士, 如有括目而對者, 未必非學契之所由助也. ……”

5 이원조(李源祚), 『응와집(凝窩集)』 권13, 「성산학계안서(星山學契案序)」. “癸丑夏, 設講會于淵院, 會者幾數百人. 凡四日而罷, 費出於育英社塾兩所. 僉曰: “於此地講此事, 始學於百年響寢之餘, 吳鄉其庶幾矣. 然財不敷則會難繼, 盍思所以繼之?” 遂各出若干錢, 合百餘緡, 輪遞拮据之, 出其羨以爲春秋供饋之費. 他鄉儒士, 亦多聞風而願入者, 遂各書名于案. 名曰學契, 別成節目, 以爲永久遵行之道. …… 周旋於兩先正之院, 講明乎兩先正之道, 未必不爲吳鄉再造之機. 莫曰倡之非其人, 而各盡其固有之心, 合鄉井之好, 講湖湘之規, 獎率後進, 毋墜舊典, 深有望於吳巢僉君子云.”

을 마련했다는 선행을 긍정하되, 근본적인 학문 성취와 인재 양성을 위한 자금 마련의 수단 정도로만 학계 결성을 인정한 것이다.⁶

2.2. 문인들이 스승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결성한 학계

지곡학계(枝谷學契)는 국창(菊窓) 김필형(金弼衡, 1725~1800)·수서(綏瑞) 이조억(李祚億)·우경(虞卿) 김용필(金龍弼)·민수(敏修) 안눌보(安訥甫)·김자희(金子晦) 등, 5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 스승 병곡(屏谷) 권구(權渠, 1672~1749)의 학덕을 추앙하기 위해 결성한 학계이다. 1790년(庚戌) 간역소(刊役所)에서 모여 수계(修契)하였다는 「서지곡학계안후(書枝谷學契案後)」의 구절⁷과 권구(權渠)의 『병곡집(屏谷集)』이 1797년 병산서원(屏山書院)에서 간행된 사실로 볼 때, 권구의 문인들이 『병곡집』을 교정하기 위해 모였다가 이조억이 발의하여 학계를 결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초안을 만들고 처음에 『풍서학계안(豊西學契案)』이라 불렀다가 김자희의 의견을 따라 「지곡학계안(枝谷學契案)」으로 바꾸었고, 이후로 다른 고을 사람들도 이 학계안에 추입(追入)하였다.

직계 제자들이 학계를 결성하여 학덕을 기리는 대상은 반드시 세상을 떠난 스승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계

당(溪堂) 류주목(柳疇睦, 1813~1872)이 쓴 「제평호김공학계안(題萍湖金公學契案)」에 따르면, 평호(萍湖) 김공(金公)에게 수학한 제자들이 김 공이 세상에 있을 때 재물을 각출하고 안에 이름을 올려,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도리를 기리기 위해 학계를 조직하였다고 한다.⁸ 스승이 살아있을 때 직계 제자들이 스승과 제자, 제자와 제자 간에 학문을 매개로 결속을 다지고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학계를 결성한 것이다.

2.3. 서원 원생이나 문중 자제의 학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결성한 학계

동락학계(東洛學契)는 동락서원(東洛書院)을 중심으로 인동(仁同)의 선비들과 선산·칠곡·성주의 유생들이 참여하여 만들어진 학계이다. 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 1792~187)는 「동락학계안서(東洛學契案序)」에서 서원이 만들어진 유래와 학문에 경중이 있다는 의견을 먼저 기술하였다. 이어 동락학계에 참여한 유생들이 장현광(張顯光, 1554~1637)을 주향(主享)한 동락서원의 안(案)에 이름을 올리기를 영광으로 여기는 것은 선현을 존중하는 유학자의 바른 본성과 학문 태도에서 비롯한 것임을 밝혔다.⁹ 사장(詞章)을 위한 학문과 과거 합격을 위한 학문을 경계하고, 문예를 겨루기보다 강토(講討)하기를 바란다는 이원조의 말에서 지역 학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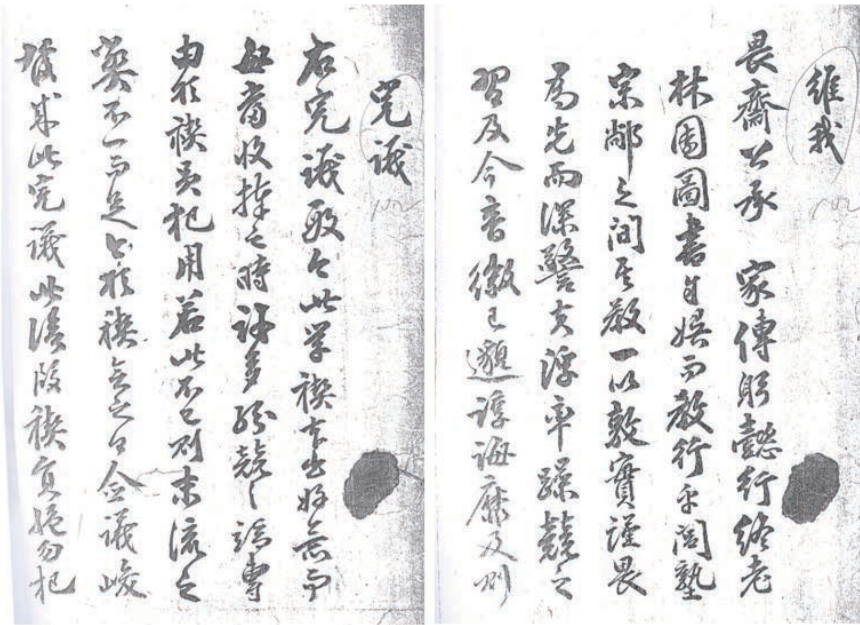
6 오형묵(鳴弘默), 『총쇄(叢瑣)』 19책, 「모성재학계서(慕聖齋學契序)」. “事可以徒成乎哉? 必皆有待而爲資然後, 用數力專而終克有功. 是以古之善始事者, 先爲之所, 以立其經紀拮据之方. 今夫聚村秀而有英才, 斯乃事業之大者也, 則不容不另爲資本以供其所需. 方使學者得肆其專工之力, 而無作撤半途之患, 此學契之所由設也. 自余莅茲, 於境內儒宮事, 竊嘗有資助勸勉之意, 而顧力無以優數廣施, 則以若干緡錢派去, 爲柴油之費, 凡數十所矣. ……因使各出添補, 凡得千伍百文, 用之爲滋殖之本, 以備異日文房之用, 既而別具一案, 徵序于余. 余爲之興歎曰: 如公可謂善於始事也. 觀世之業儒者鮮克有成, 非皆才之罪也, 坐無資地而止者, 十居七八. 苟使此契完其規而節其算, 終能左右取之逢其原, 則安知無司馬相如出於其中耶? 公其勉哉.”

위의 책, 「야은재학계서(野隱齋學契序)」. “…… 一日以野隱齋學契案來曰: 里舊有塾室, 廩具名色, 而供學之資, 每患未敷, 年前自諸族各家, 更加出力. 又有柳氏同志亦數家, 共得若干財殖之. 現今有田幾頃, 有錢幾緡, 因以拮据, 亦足根基, 而所可憂者, 人有始而鮮終, 物漸多而難全. 茲又發謀修成契案, 以爲永遵之規則, ……”

7 김필형(金弼衡), 『국창유고·리(菊窓遺稿·利)』 권3, 「서지곡학계안후(書枝谷學契案後)」. “……是歲至月, 會于吳里刊役所修契之日, 凡伍十餘人, 遂列書姓名于冊……”

8 류주목(柳疇睦), 『계당집(溪堂集)』 권10, 「제평호김공학계안(題萍湖金公學契案)」. “……今其挾笈之士相與謀, 及公之世, 各出如干物, 編名載案, 俾鳩長應後, 圖所以爲不泯之計. 公之胤富河囑余書其事, 不佞懿有所自別於人, 況其所受眷, 尤非佗可比, 敢不興於爲善樂與之言乎? 噫斯契也誠耳. 非誠無物, 苟使同契之人, 能一於誠而始卒無替, 則教學之道, 庶乎其兩得而有辭矣.”

9 이원조, 『응와집』 권13, 「동락학계안서(東洛學契案序)」. “……是契也, 不于山亭水榭, 而必于是院, 院即我旅軒文康公俎豆之所也. 文康公以儒學教于鄉而需于世, 至今仁之士, 多彬彬焉. 况若善若漆若鄆州數邑之士, 稍知自好, 皆汲汲以托名是案爲榮, 豈不以慕賢向道之心, 出於彝性之所同然也耶? 然則是契之成, 眞若無愧於學之名, 而是案也眞若不可無矣. 因念余無似, 始以業公車, 中而攻文辭, 晚始留意此學, 冀得與同志之士, 抱負填典, 相從於寂寞之濱, 以收桑榆之功, 而徘徊歧路, 尙未能自信. 向嘗一赴院, 速汎舟不知巖下, 觀諸生白戰終日, 酣鬯甚樂, 而但恨是會也, 不以講討而以校藝. 今於諸君子之請, 鄭重而不敢言, 姑發端以誌於後.”



〈도 2〉 풍산류씨 문중의 「학계안」, 서문(우)과 「완의」(좌)

학계임을 짐작할 수 있다.

1800년에 작성된 풍산류씨(豊山柳氏)의 「학계안」은 의재(畏齋) 류종춘(柳宗春, 1720~1795) 문중 자제의 학문 진전과 친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안이다.

풍산류씨 문중의 가학을 이어받은 류종춘이 그동안 산림에 머물며 종친에게 가르침을 내렸으나, 류종춘이 세상을 떠난 지금은 직접 배웠던 이들이 가르쳐 주신 뜻을 망각할까 염려하여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의 이름을 적어 학계를 만들었다고 하였다.¹⁰ 「학계안」을 만든 경위를 드러낸 내용에 이어, 계원이 재물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담당자가 관리하되 납부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할 시 담당자가 대신 납부해야 한다는 등의 학계 운영 지침을 적은 완의가 실려 있다.¹¹ 학계의 좌목에 수록된 인명이 대부분 풍산류씨로, 학계의 결성이 문중 자제 및 친족의 학업 진흥을 위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10 풍산류씨, 『학계안』. “維我畏齋公, 承家傳躬懿行, 終老林園, 圖書自籍, 而教行乎閭塾宗鄰之間, 其教一以敦實謹畏爲先, 而深警夫浮率躁競之習. 及今音徽已邈, 諄誨靡及, 則凡我親炙諸人, 惟墜失牖迪之至意是懼. 茲庸命識同志名字于一冊, 以爲追惟粗效之地焉爾. 庚申臘月十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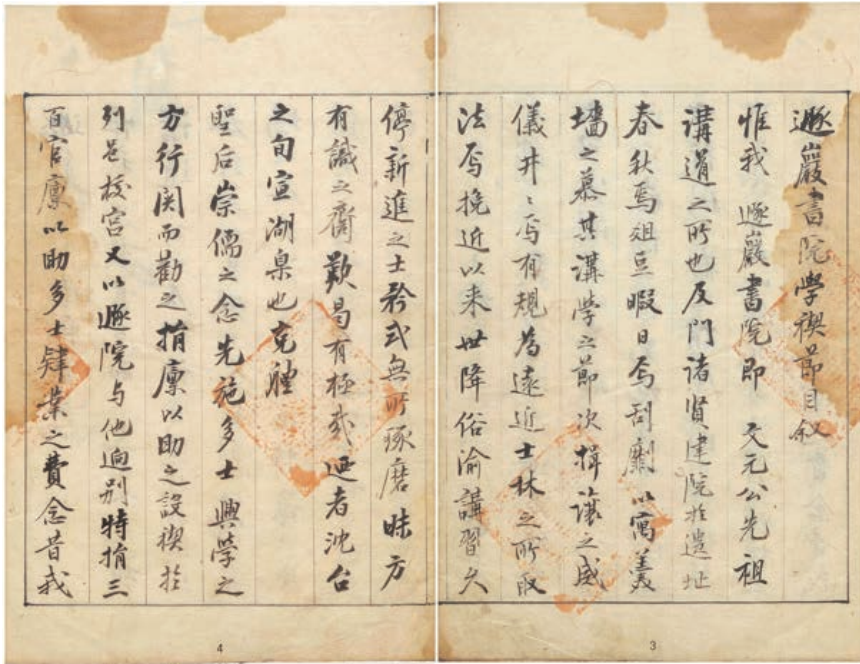
11 풍산류씨, 『학계안』, 「완의(完議)」. “右完議段, 今此學契, 本出好意, 而每當收捧之時, 許多紛競之端, 專由於稷員犯用, 若此不已, 則末流之弊, 不一而足. 今於稷會之日, 僉議峻發, 成此完議. 此後段, 稷員絕勿犯用, 當次有司, 獨自擔當, 無故如前之弊爲於, 納者或有不實之端, 則有司自當備納幸甚. 庚申十月十日稷中”

창산학계(昌山學契)는 창녕 지방의 사족 중 하씨(河氏) 문중과 노씨(盧氏) 문중이 주축이 된 학계로, 1868년(戊辰)에 학계를 결성할 때 노가윤(盧可潤, 1817~1875)이 그 일을 주관하였다고 한다. 다만 창산학계의 소속원이 특정 문중의 사람들에게 치우칠 것을 염려하여 지역 유생을 추입(導入)한 결과, 2백여 명에 달하는 명단이 「학계안」에 실리게 되었다. 「창산학계안서(昌山學契案序)」를 쓴 한주(寒洲) 이진상(李震相, 1818~1886)은 1875년(乙亥)에 강림재(江林齋)에서 약회

(約會)를 할 때 본인이 향음례(鄉飲禮)를 거행하고 여씨향약(呂氏鄉約)과 주자동규(朱子洞規)를 아뢴 뒤, 모인 선비들의 요청에 따라 과거 시험 문장을 고과(考課)하고 경의(經義)에 관한 문제를 내었음을 밝혔다.¹²

권주환(權曹煥, 1825~1893)의 「학계안서(學契案序)」에 서술된 학계는 문중 주축, 학업 자금 마련, 학풍 쇄신 목적 등, 다소 복합적인 성격을 보인다. 권주환은 입심(立心)이나 공부는 자신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굳이 계를 조직할 필요는 없으나, 스승에게 배우러 가거나 유학하여 상숙(庠塾)에 머무를 때, 동학들과의 강회, 서적 구매 등, 과거에 응시할 비용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선대의 종족들이 계를 조직하였음을 밝혔다. 지난날 학계를 유지하던 자금이 소진되고 현재는 계안(稷案)만 남아 문풍과 사기(士氣)가 침체되었으므로, 다시 학계를 재정비하여 제군이 학문의 근본에 힘쓰도록 권면하되, 재화를 불리고 이익에 몰두

12 이진상(李震相), 『한주집(寒洲集)』 권29, 「창산학계안서(昌山學契案序)」. “……昌山自鄭文穆先生倡教之後, 斌斌多文學之士. 向在戊辰, 河盧兩門, 相與結契, 亡友盧可潤幹其事, 既勤且敏, 用迄于成. 又嫌其偏而不咸也, 廣開追入之路, 鄉員之始分者保合之, 道儒之應參者造請之, 遂各書名于案, 案凡二百有餘員. 歲乙亥, 約會于江林齋, 齋乃盧氏之楸舍, 與河氏先亭對岸相望, 大江灣回, 風景絕勝, 平沙嫩蘆, 煙樹兩帆, 皆足以鼓發雅趣也. 余以謏學, 謬當陞座之任, 冒從羣彥之列, 先之以鄉飲禮, 而申之以呂氏鄉約朱子洞規. 仍以多士之請, 考課時文, 發問經義, 三日而畢, 甚樂也. 僉以爲契案不容無序, 屬筆於余, 鄭重而請益勤. ……”



〈도 3〉「돈암서원 학계절목서(遯巖書院學契節目叙)」

계 결성을 통해 지역 사림의 학풍을 진작 시킬 기대가 드러나 있다.

2.4. 과문(科文) 학습과 과거 시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과계안(科契案)」

과거 시험을 위한 준비처럼 계(契)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난 학계(學契)가 있다. 해남 노송의 김해 김씨 문중의 김재일(金載一, 1749~1817)은 영남의 찰방직을 얻어 약간의 재물을 마련한 뒤, 자제의 과거 준비를 위해 과계(科契)를 결성하였다. 김재일은 어촌에서 태어나 문과에 급제한 자신의 성공을 조상의 음덕과 부모의 은혜

하는 것을 경계한다는 취지의 서문을 남겼다.¹³ 권주환은 학문 강마 및 과거 응시를 위한 금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서도 학계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를 중족 내 제군의 학풍을 쇄신시키는 데에 두었다.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을 주향한 돈암서원(遯巖書院)의 원생들은 선현의 학덕을 계승하기 위한 학계를 조직한 뒤 학계 운영 지침인 절목을 만들었다. 이에 김장생의 후손인 김영화(金永和)는 1886년(丙戌)에 학계와 절목을 만든 경위를 서술하여 남겼다.

돈암서원은 김장생이 도(道)를 강명(講明)하던 곳이었으나 근래 세속이 투박해져 신진 선비들이 본받을 곳이 없었는데, 심(沈) 대감이 관찰사로서 경비를 마련하여 학비를 원조함에 따라 원생들도 이에 응하여 돈암서원 학계를 결성하게 되었다는 내력을 밝혔다.¹⁴ 학계를 마련하고 절목을 만들어 길이 지켜나감으로써, 쇠퇴한 유학을 만회하고 성상의 문교를 돕는다는 말미의 내용에는 돈암서원 학

에 의한 운으로 돌렸다. 글을 배워서 가문의 명성을 계승하는 것이 빈부나 재능의 차이뿐만 아니라 자손의 학업 기회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처음에 「문학계(文學契)」라는 이름으로 학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결성한 계를 통해 돈과 곡식을 불러 자손에게 학문을 권장하고, 8가지 규정을 추가로 만들어 이를 준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김재일의 증손인 김용혁(金龍赫, 1824~?)이 1878년에 추서(追序)하여, 과거 공부를 위한 서적 구입, 스승에 대한 예물 비용, 과거에 응시하기 위한 노자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토지를 따로 마련하여 과계를 보충하고 증조부 김재일의 뜻을 기린 것이 현재 해남 노송 김해김씨 문중의 「과계안」이다.¹⁵

과거 공부를 대비하고 노잣돈 및 좋은 품질의 시지(試紙)나 후지(厚紙)를 마련하는 과정은 개인에게 큰 부담이 있으므로,¹⁶ 과거 시험 비용 일체를 지원하기 위한 「과계안」 또한 학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준비를 위한

13 권주환(權胄煥), 『금서유집(琴樓遺集)』 권4, 「학계안서(學契案序)」

14 김영화(金永和), 「돈암서원 학계절목서(遯巖書院學契節目叙)」, “惟我遯巖書院, 卽文元公先祖講道之所也. ……挽近以來, 世降俗渝, 講習久停, 新進之士, 矜式無所, 琢磨昧方, 有識之齎歎, 曷有極哉? ……今者沈台, 又有此盛舉, 猶歎休哉!”

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집부, 『고문서집성(古文書集成)』 39 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출판부, 1998; 김기림, 「조선시대 장학(獎學) 프로그램, 과계(科契)」, 한국학중앙연구원 호남학산책 칼럼, 2023. <https://www.hiks.or.kr/HonamHeritage>

16 윤선영, 「조선시대 과거 낙폭지(落幅紙)의 재활용 문화」, 『민족문화연구』 9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2, 187~210쪽.

계의 결성과 이에 관한 문건은 1834년 경상도 남해현 남면(南面)의 관전 목록(官錢目錄) 중 과계전(科契錢),¹⁷ 1889년 구례 토지면의 임노승(林魯升)이 본인 소유인 논을 과계에 판 명문,¹⁸ 을해년 11월에 작성된 「과계분책기(科契分債記)」¹⁹ 등을 들 수 있다.

과문(科文) 학습을 회의적으로 수용하면서 서원에서든 과문 학습을 중용하기도 하였으나²⁰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유생에게 서원 출입이 허용될 수는 없었다. 향교나 서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과거 시험 준비자들은 선후배나 동료들과 함께 거접(居接)을 하거나, 혹은 동계(洞契)를 통해 단기간 강회(講會)를 하면서 과문을 익혔다. 거접은 농한기나 추수기 이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거접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조달해야 하므로 거접 시기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때를 피해서 이루어진 상황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²¹ 이와 같이 과거에 뜻을 두었다라도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에 있던 이들이 모여, 거접이나 동계를 구축하면서 과계를 결성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3. 「학계안」에 제시된 학문의 정론(正論)

학계를 조직자가 주로 내세운 명분은 학문의 정론이었다. 학계 결성을 통해 올바른 학문을 추구함으로써, 후대로 올수록 무너졌던 사풍(士風)을 바로잡고 말단에 치우친 학습 세대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었다.

[1] 오늘날의 습속은 장려하는데 위로 국학(國學)에서부

터 아래로 향학(鄉學)에 이르기까지 스승이 선비에게 일러주는 것과 선비가 그들에게 진술하는 것은 진부한 글자를 엮어 모아서 명성과 녹봉을 낚으려고 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은 이른바 글자 꾸밈이 더욱 공교로울수록 심술(心術)은 더욱 무너진다는 것이다. 가령 이 지방 사람으로 하여금 멀리 본보기를 세우게 한다면 오히려 누구를 높일 것이며, 백성들을 보호하는 공업을 주관하게 하는 이에게 궁하게 시골에 처하게 한다면 또한 어찌 윤리를 돈독히 하고 그른 것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알겠는가. 이는 다른 것이 아니다.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뿌리를 돈우지 않고 가지와 잎이 무성하기를 바라고 근원을 깊이하지 않으면서 또한 말류(末流)가 맑기를 바란다면 천하에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겠는가.²²

『임고서원장학계안(臨臯書院獎學稷案)』에 추서(追序)를 쓴 정하원(鄭夏源)은 오늘날 제대로 된 학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습속과 세태를 지적하고, 문식(文飾)에 치우친 교육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계를 통해 근본적인 학문 연마와 심성 수양에 주력할 것을 주장하였다.

창산학계(昌山學契)의 계안(契案) 서문에 나타난 학계 결성의 명분 또한 임고서원장학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창산학계의 창산은 창녕의 옛 이름으로, 한강(寒岡) 정구(鄭逵, 1543~1620)가 수령을 지내면서 창녕의 후학들을 이끌어 학문적 자취를 남겼던 지역이다. 이진상(李震相)은 삼대(三代) 때부터 상서(庠序)에서 시서예악(詩書禮樂)을 가르쳐 나라에 선비들이 인재로 등용되었으나, 학정(學政)이 쇠퇴해지고 사습(士習)이 투박해진 이후로는 선비들이 산수의 정자에 노니느라 유업에 힘쓰지 않고 시와 술로 방랑하며, 한(漢)·진(晉) 때부터 수계(修契)하더라도 궁리(窮理)·정심(正心)·수기(修己)·치인(治人)의 학문에 도달하

17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 : <https://yn.ugyo.net/>

18 한국학자료센터 호남권역 : <http://hknkostma.org/>

19 한국국학진흥원 소장(자료ID: 109744)

20 김기업, 「조선시대 학자들의 科文 학습에 대한 비판과 회의적 수용 양상」, 『대동한문학』 74, 대동한문학회, 2023, 5~36쪽.

21 전경목, 「조선후기 지방유생들의 수학과 과거응시: 권상일의 『청대일기』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88, 한국사학회, 2007, 278~281쪽.

22 정하원, 『임고서원장학계안』, 「서장학계서후(書獎學契序後)」, “……顧今習俗之弊, 上自國學, 下至鄉學, 師之所以賣於士, 士之所以述於口者, 不越乎掇拾陳腐, 以釣聲名利祿而已. 此所以詞藻愈工, 而心術愈壞, 假使此道人, 遠而立口, 尙何聖尊, 主庇民之功, 窮而處鄉, 亦安知敦倫正偽之道哉. 此無他. 教者賣也. 不培其根而望枝葉之茂, 不浚其源而亦末流之清, 天下寧有是耶?……”

지 못한 점을 한탄하였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성대한 문물이 한·진나라를 뛰어넘고 학교 교육의 범위도 삼대에 비견된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학문에 대한 자부를 드러내었다. 정구(鄭逋)의 자취가 남은 창녕에서 학계를 결성하여, 효제(孝悌)를 근본으로 하고 성명(性命)에 통달하며 예양(禮讓)과 검약을 권면함으로써, 근래 외국 문물의 유입에 따른 유학의 쇠퇴로부터 우리의 바른 학문을 지킬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을 남겼다.²³ 창산학계안(昌山學契案) 서문에서 밝힌 이진상의 취지 또한 “글을 꾸미고 다듬는 것은 학문을 하는 실체가 아니다[雕蟲篆刻, 非爲學之實]”라는 학문의 정론을 비롯하여, 앞으로 유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한 것이다.

[2] 옛날에 상숙(庠塾)이 설치되어 배우지 않는 사람이 없었는데, 후세에 서원으로 바뀌면서 학문에 뜻이 있는 자들만 비로소 들이기를 허락하였다. 가르침이 해이해지고 풍속이 투박해지자, 서원에 들어가는 선비들이 반드시 전부 고협(鼓篋)할 것 없이 책을 볼 수 있었으니, 이에 별도로 일소(一所)를 마련하여 강학이라 부르고 명부에 이름을 적게 하였다. 이것이 세도가 세 번 변하면서 학계(學契)에 안(案)이 생기게 된 유래이다. 아! 없어도 되는 것인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 학문에는 세 등급이 있으니, 바로 유자(儒者)의 학문, 사장(詞章)의 학문, 공령(功令)의 학문이다. 공령의 학문은 과거에 응시하는 것에 세상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것이고, 사장

의 학문은 쓰기에 적당한 것으로 잡박한 데에 힘써 군자들이 병폐로 여겼다. 오로지 유자의 학문은 옛날 상숙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던 유법(遺法)이고, 주희(朱熹)·장횡거(張橫渠)와 같은 현인들이 일찍이 백록동(白鹿洞)과 형악(衡嶽)에서 제생들에게 정성껏 가르치던 학문이었다. 나는 금일의 학계(學契)가 이 세 가지의 학문 중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다.²⁴

이원조는 「동락학계안서(東洛學契案序)」에서 서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학계의 유래를 밝히고, 학문에 있어 유자(儒者)·사장(詞章)·공령(功令)이라는 학문의 세 등급을 제시하였다. 동락학계가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을 주향한 동락서원이 중심이고 동락학계의 소속 유림 또한 장현광의 학풍에 영향을 받은 사실에 주목하여 위와 같이 학문의 정론을 제시하였다. 말미에 “이 모임에서 강토(講討)가 아니라 문예를 겨루는 것이 유감일 뿐이다[但恨是會也, 不以講討而以校藝]”라는 말은 사장·공령의 학문을 경계하고 선현의 도리를 강명(講明)하여 유자의 학문에 힘쓸 것을 당부한 것이다. 이원조가 유자지학(儒者之學)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은 권주환(權胄煥)이 『금서유집(琴樓遺集)』의 「학계안서(學契案序)」에서 ‘음식이나 옷처럼 날마다 일삼아야 하는 선비의 학문이란 오도(吳道)에 전수되는 정법(正法)이고, 사장지문(詞章之文)이나 과거지문(科擧之文)도 여기에서 나온 것이므로 선비가 힘써야 할 학문에는 경중이 있다’라고 한 말과 맥락을 같이 한다.

23 이진상, 『한주집』 권29, 「창산학계안서」. “學法昉於三代, 講業考藝, 明體而致用者也. 居之以庠序校塾, 教之以詩書禮樂, 士無常籍, 遞陞而迭居之, 國有常祿, 羣聚而公養之, 士所以易於爲學, 國所以易於得人. 嗟夫! 學政衰而士習渝, 無所於居業而放浪於山亭水榭之間, 無意於聞道而佚宕於詩酒琴棋之外. 修契之名, 起於漢晉, 而亦只是祓除之義, 少長畢集, 觴詠自適而已, 何嘗念到於窮理正心修己治人之學哉? 我東文物之盛, 跨越漢晉, 學校之廣, 比隆三代, 逮至近日, 風厲不振, 廬阜有絕塑之患, 鹿洞有鞠草之歎, 士而有志於學者, 雖欲擇善於明習, 觀禮於旅酬, 供億之費, 力不能辦. 於是乎勸出學契之名, 五備禮會之資, 其始也零星湊合, 其終焉量入爲出, 抑亦衰世之美規也. 昌山自鄭文穆先生倡教之後, 斌斌多文學之士. …… 余乃復之曰學之患, 在於趣時. 雕蟲篆刻, 非爲學之實, 務契之患, 在乎近膩. 酒食流連, 非設契之本意, 本之於孝悌而達之於性命, 行之以禮讓而守之以儉約, 然後學可大而契可久也. 況今正道寢衰, 異教將熾, 同志之士, 政宜熟講細論, 交相勸勉, 力砥外至之邪沚, 扶護一線之微陽. ……”

24 이원조, 『응와집』 권13, 「동락학계안서」. “古者庠塾設而人無不學, 後世易之以書院, 而志學者始許入焉. 及乎教弛而俗渝, 入院之士, 未必皆敲篋而視簡, 則於是乎別設一所, 名之曰講學, 而書名于籍, 此世道之三變而學契之所以有案也. 於乎! 其可無也與, 亦不可無也與. 然學亦有三等, 有儒者之學, 有詞章之學, 有功令之學. 功令所以應舉而世方拚死生以赴之, 詞章所以適用而馳騁駁雜, 君子病之. 獨儒者之學, 即古者庠塾教人之遺法, 而朱張諸賢所嘗惓惓於白鹿衡嶽諸生者也. 余未知今日之學之契, 於斯三者奚出焉. ……”

4. 결론

이상으로 학비 조달 및 교육을 목적으로 결성한 학계(學契(稷)·(稷))를 유형별로 나누어서 그 편찬 경위와 목적을 파악하고, 안(案)에 제시된 학계 결성의 명분과 학문의 정론을 고찰하였다. 학계는 많은 이칭으로 결성되었으나 작성자 정보가 없어 학계 결성 목적을 확인할 수 없고, 간지만 기록되어 연대를 추정할 수 없는 자료가 많다. 이 연구에서는 서(序)·후서(後序)·발(跋)·제(題) 등의 글을 통해 편찬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학계안 자료를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학계는 결성 목적 및 안(案)의 편찬 경위에 따라 그 성격이 세부적으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유생의 과업 장려를 위한 장학금과 강회(講會) 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 문인들이 스승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결성한 학계, 서원 원생이나 문중 자제의 학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결성한 학계, 과문(科文) 학습과 과거 시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과거안(科契案)」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학계 결성의 주축이 되어 학계안의 의의를 밝힌 학자들은 유학자로서 나아가야 할 학문의 방향을 제시하고, 학계를 통해 후학을 이끌고 쇠퇴해져 가는 학풍을 일으킬 것을 과업으로 내세웠다.

본고는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학계안을 중심으로 학계의 결성 및 학계안의 편찬 경위, 학계 결성의 명분 등을 살펴으로써, 계 조직을 통한 학문의 권장이라는 우리나라 학술문화의 일면을 조망할 수 있었다는 데에 작은 의의를 둔다. 다만 앞으로도 꾸준히 학계 관련 자료의 발굴이 병행되고 이를 토대로 契案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와 자료 정리가 진행되어야, 학계 연구의 외연이 확장되고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해지리라 본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權曹煥, 『琴樓遺集』, 한국국학진흥원, 영남사립문집.
 金弼衡, 『菊窓先生遺稿』, 한국역대문집총서(No. 3321-3322).
 柳鵬塗, 『溪堂集』, 한국문집총간 313집, 민족문화추진위원회.
 李源祚, 『凝窩集』, 한국문집총간(속)121집, 민족문화추진위원회.
 李震相, 『寒洲集』, 한국문집총간 318집, 민족문화추진위원회.
 鳴弘默, 『叢瑣錄』, 한국학중앙연구원(K4-6566).
 柳象春·柳宗春·柳相祚, 『學稷案』(1800),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풍산류씨 양진당.
 鄭友源 編(1913), 『新窩鄭先生後裔興學契案』, 국립중앙도서관(古2513-449).

2. 단행본 및 논문

- 김기업, 「조선시대 학자들의 科文 학습에 대한 비판과 회의적 수용 양상」, 『대동한문학』 74, 대동한문학회, 2023, 5~36쪽.
 김현영, 『고문서를 통해본 조선시대사화사』, 2003, 신서원.
 심재우,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향약·계 이해와 향촌자치 구상」, 『조선시대사학보』 105, 조선시대사학회, 2023, 325~355쪽.
 이경동, 「조선시대 논산지역 서원의 운영과 특징: 遯巖書院, 魯岡書院, 竹林書院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81, 민족문화연구소, 2022, 163~196쪽.
 윤선영, 「조선시대 과거 낙폭지(落幅紙)의 재활용 문화」, 『민족문화연구』 9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2, 187~210쪽.
 전경목, 「조선후기 지방유생들의 수학과 과거응시: 권상일의 『청대일기』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88, 한국사학회, 2007, 263~310쪽.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 계 조직(組織)과 규약(規約)의 “계약(契約)” 적 성격」, 『고문서연구』 42, 한국고문서학회, 2013, 59~81쪽.

3. 기타자료

- 국립민속박물관 : <https://www.nfm.go.kr/home/index.do>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 <https://www.heritage.go.kr>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 <https://db.itkc.or.kr>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 <https://www.ugyo.net>
 한국학자료센터 : <https://kostm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장서각 : <https://jsg.aks.ac.kr>
 한국학호남진흥원 호남학산책 : <https://www.hiks.or.kr/HonamHeritage>

Abstract**An aspect of the academic organizational culture of the late Joseon Dynasty through the Hakgyean of the local family**

Kim, Gi-Yeop | Kwangwoon University

The Hakgye refers to an organization formed for the purpose of raising or educating tuition fees. There is a Hakgyean that records the list of people belonging to the organization as literature data on the operation of the Hakgye. This Hakgyean consists of a part that clarified the purpose of the formation of the academic world, such as a preface to the purpose or protocol, the protocol to maintain the academic world, and the list of participants and financial information made up the academic world. Academia was formed by a lot of titles, but there are many data for which the purpose of formation of the academic world cannot be confirmed because there is no information on the author, and there are many data for which solidarity cannot be estimated. In this study, the contents were analyzed centering on the data on the academic draft that can confirm the purpose of compilation. The characteristics of Hakgye are classified in detail according to the purpose of formation and the compilation of the document. Here, scholarships to encourage the work of Confucian scholars and financing for discussion management, organizations formed by writers to honor the virtues of their teachers, organizations formed to promote the study of seowon students or children in the family, and civil service examinations document to pay for civil service examinations studies and examination expenses. Scholars who became the main axis of the formation of the Hakgye and revealed the significance of the Hakgyean suggested the direction of the study to proceed as a Confucian scholar, and suggested that the task would be to lead the younger students and create a declining academic style through Hakgye. It is of little significance that we were able to see one aspect of Korean academic culture, which is the recommendation of academics through the organization, by examining the formation and compilation of academic organizations and the causes of formation, focusing on the Hakgyean that has not been studied so far.

Keywords Hakgye, Education, Confucianism, Scholarship, Civil service